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산하 난치성아토피피부염 연구팀을 소개합니다.

난치성아토피피부염 연구팀은 2008년 아주의대 내과 남동호 교수님을 팀장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자연경과를 보여 환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근거없는 민간요법이 횡행하는 분야로 전공을 막론하고 임상의로서는 부담스러운 질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증의 일부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진료와 연구의 경험을 공유하는 본 연구팀에 합류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전문의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아토피피부염은 유병률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10여 년간 정부 주도의 예방관리사업의 주요 대상질환이며 국내외 임상과 기초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본 연구팀은 현재 팀장, 간사와 실무진 모임을 주축으로 공동연구 주제 선정과 진행, 분기별 정기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천식알레르기 학회지에 본 연구팀의 공동연구로 ‘난치성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12;30:25-70), ‘아토피피부염 치료 실태에 관한 다기관 설문조사’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6;4:271-5)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2016년에 연구팀 공동여구로 선정된 ‘아토피피부염 환자 클러스터 분석에 의한 표현형 규명’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팀 시작 10년이 되는 올해 3월 18일에는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아토피피부염 심포지엄’을 연구팀 주관으로 개최하여 전문가 분들을 초청하여 지금까지 구축된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현장에서 경험하신 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난치성 아토피피부염 연구팀은 창립 지속적인 정기모임을 통해서 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나누며 발전과 교류를 모색하고 의미있는 공동연구를 발전시켜 난치성 아토피피부염의 완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